

선거 돕고 얼굴 알리고... 與 당권주자들 '일석이조'

송영길·김진표·전해철, 당원 접촉 늘리며 표밭 다지기 광주·전남 등 하루 7~8곳 유세장 돌며 지원 유세 강행군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월 말 전당대회 예비주자들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와 전남지역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며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후보들을 지원하며 승리에 힘을 보태는 동시에 당원들과 접촉을 늘리며 사실상 전대 표밭을 다지고 있어서다.

전대 예비주자로 꼽히는 의원들은 여러 사·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직책을 겸하며 전국을 돌며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고흥 출신인 송영길(4선) 의원은 지난 2일 전남지역을 돌며 이어 4일에는 광주지역 후

보 지원 유세에 나선다.

전남과 전북·제주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지난 2일 보성·장흥·강진·해남·영암·목포·신안 등 7개 선거구를 돌며 자치단체장 후보와 지방의원 후보들의 유세 지원을 하는 등 광폭행보를 보였다.

송 의원은 이어 5일에는 고흥·보성 군수 후보 지원 유세를 한 뒤 광주로 자리를 옮겨 광주 동구와 서구, 남구, 광산구, 북구청장 후보 지원을 위한 릴레이 지원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김진표(4선) 의원도 경남·제주·전남·전북·강원·대구·광주 선대위에는 공동선대위원장이

로, 경기 선대위에는 상임고문으로 참여해 모두 8개 선대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함평과 장성, 목포, 장흥, 보성, 여수, 광양, 순천 등 7개 지역을 돌며 민주당 후보들의 유세를 거둬고, 각 후보 선거 캠프 행사와 도보 유세 등에 참여했다.

최근 전대 출마설이 나오는 전해철(재선) 의원은 중앙당 공동선대위원장과 경기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것을 비롯해 경남·제주·전남·전남·강원·대구 선대위에도 참여하고 있다.

전 의원은 조만간 전남지역을 돌며 당원 접촉 폭을 넓히는 동시에 각 후보들의 지원 유세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 임기를 마치고 당 대표 도전을 고려 중인 우원식(3선) 의원은 중앙당 공동선대위원장과 동시에 서울 상임선대위원장, 전남·

제주·강원·경남 공동선대위원장이름표를 달고 전국을 누비는 중이다.

이인영(3선) 의원은 서울·전북·경남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두관(조선) 의원은 울산 상임선대위원장, 경기·전남·대구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경남 선대위에도 참여했다.

전대 출마를 두고 당내 큰 관심을 받는 이해찬(7선) 의원은 중앙당 수석공동선대위원장과 세종·제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뛰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애초 지난달 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를 구성할 예정이었지만 선거 이후에 전준위를 띄울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준위가 구성되면 당헌·당규 분과위원회를 설치,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확정한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6·13 선거현장

전남지사·군수 후보

민영삼, 순천·여수·광양 강행군 유세



민영삼 민주당회당 전남도지사 후보는 지난 2일 순천과 여수, 광양에서 강행군 유세를 벌였다.

민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호남 들쭉이들론'을 펼치며 "호남에서 경쟁체제를 유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안철수 후보가 정치적으로 부도를 내고 도망갔지만, 평화당 국회의원 14명이 남아서 호남을 위해 업적을 남기고 있다"며 "고용위기지역에 이어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을 받도록 열심히 노력해 전남도 추경예산 6000억을 배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구충곤 "화순군 예산 7000억 시대 열 것"



구충곤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수 후보는 3일 화순군 예산 7000억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구 후보는 "지난해 최초로 예산 5000억원 시대를 열었다"며 "문재인 정부 때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화순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많은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며 "구충곤은 정부 고위 관계자와 핫라인이 구축된 힘 있는 유일한 여당 후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구 후보는 확성기 사용을 자제하고 유세일정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저녁 유세를 오후 8시 이전에 끝냄으로써 주민이 편안한 저녁 시간을 보내도록 조용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미다.

하승완 "정당보다 인물보고 뽑아달라"



하승완 무소속 보성군수 후보는 2일 보성역 앞 광장에서 필승 결의대회를 하고 보성읍 유세활동을 벌였다.

하 후보는 "위기 상황인 보성군은 특정 정당 후보보다는 일 잘하고 정열하고 노련한 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가난과 어려운 환경의 역경을 스스로 이겨낸 끈기 있는 성공신화 주인공"이라며 "군수 부재라는 보성군 위기를 조기에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권자가 자원봉사자가 돼 적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하승완은 김대중 대통령이 보성군수로 선택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탁월한 행정능력을 충분히 인정했다"면서 "여당과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겠다"고 말했다.

천경배 "혁신공항 조속 개항"



천경배 더불어민주당 신안군수 후보는 혁신공항 조속 개항을 약속했다.

천 후보는 지난 1일 혁신면을 방문해 "혁신도는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 부처와 협의해 즉각적인 대담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공항 개항에 맞춰 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거점형 항공회사 설립이 필요하다"면서 "이 항공회사는 혁신공항을 거점으로 소형 항공기로 국내 및 동북아 주요 도시를 오가는 에어-택시, 에어-셔틀 서비스를 제공(편리한 스케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김홍걸 "민주당 지지를"

여수시장·곡성군수 후보 지원 민주당회당 'DJ 계승' 견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아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난 2일 전남 첫 유세지역으로 곡성과 여수를 방문 'DJ 마케팅'에 시동을 걸었다.

김 위원장의 전남 유세 참여는 민주당회당의 'DJ 계승·호남 적통' 주장을 뿌리째 흔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곡성군청 앞에서 유권기 곡성군수 후보를 지원한 데 이어 여수 송원백화점 사거리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와 권세도 여수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벌였다.

그는 "민주당 후보 당선은 김대중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업적을 잇는 길"이라며 "여수에서 유라시아 대륙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번영·평화를 이뤄낼 소중한 기틀을 마련하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유세현장에서 육지 최남단 여수에서 시작해 북한·중국·러시아 대륙을 잇는 북방진출을 이루겠다는 의미를 담은 '한반도 배지'를 김영록·권세도 후보에게 달아주며 격려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도 "광주·부산·전남·경남을 잇는 남해안 광역도시 구축과 목포·부산 고속철도 사업에 여수를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제2 철도정비장'을 여수에 두겠다"고 약속했다.



김홍걸 "DJ 적통은 민주당" 지난 2일 곡성군청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 3남인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 유권기 곡성군수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나명주mjna@kwangju.co.kr

광주·전남 유권자 4년새 6만2천명 증가

전국 4290만7715명 40대·50대 40% 차지... 외국인 119% 늘어

6·13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광주·전남 유권자는 274만9653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4290만7715명이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광주지역 유권자는 117만2429명으로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 3만4231명이 늘었고, 전남지역은 지난 지방선거보다 2만7784명이 늘어난 157만7224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는 4290만7715명이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이는 2014년 지방선거 때보다 161만1487명, 지난해 19대 대통령선거 때보다는 42만8005명 늘어난 수치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053만30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38만947명 ▲부산 293만9046명 등 순이었다. 가장 선거인 수가 적은 시·도는 세종으로, 22만2852명이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863만4301명(20.1%) ▲50대가 856만6347명

(20.0%)으로 전체 40.1%를 차지했고 70대 이상이 513만335명(12.0%)으로 가장 적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았지만, 서울의 경우 40대가 가장 많았고 30대가 두 번째로 많았다. 전남은 50대가 가장 많고 70대 이상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 세종에서는 30대, 40대 순으로 선거인 수가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 유권자가 2165만7252명으로 남성유권자보다 40만6789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선거권자는 10만6205명으로, 4년 전 4만8428명보다 119% 증가했다.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와 투표소 위치는 2일부터 투표일까지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사66주년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직접 운영하실 분 ▶ 평만 있으면 발전 설비에 드립니다. 원금, 이자 빠고 6~8% 가능

장기 임대주실 분 ▶ 20년후 기부체납 (임대비 선불로 드립니다)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